

반려견순찰대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중심 치안활동 강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시민 참여 통한 융합 치안 확산 자문단 제안 반영 맞춤형 행정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취약계층·여성·청소년·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중심의 치안 활동 강화에 나섰다.

4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가 최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 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보고'에 따르면, 자치경찰위는 올해 범죄 취약지역 생활환경 개선,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 및 보호·지원 강화, 학대 피해 아동 의료물품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우선 자치경찰위는 1인가구 밀집 거주지 중 강북구 수유3동, 관악구 신림동, 구로구 구로2동에 5억1800만원을 들여 범죄 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미러시트, LED조명, 비상벨 등 범죄심리를 위축시키는 시설물을 설치해 범행을 예방하고 주민 불안을 감소시키는 내용이다. 자치경찰위는 지난달 사업지별 생활안심디자인 솔루션 도출과 기본설계를 완료했다. 이달



반려견 순찰대 운영 모습.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가 연내 준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위는 여성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서울시의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안심장비지원(가정용 CCTV, 스마트초인종 등) 사업을 적극 안내

하기로 했다. 스톱킹 가해자를 타깃으로 '상담치료 프로그램'도 총 8회 진행한다. 스톱킹 행위의 근본적인 차단을 위해서라고 자치경찰위는 설명했다.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학대 피해 아동 326명(영아 75명·유아 79

명·청소년 172명)에게는 실내복, 이유식 스푼세트, 가운형 목욕타월 등을 지급한다.

아울러 자치경찰위는 시민 참여를 통한 융합 치안 확산에도 힘쓴다. 자치경찰위는 견주가 반려견과 산책하며 위험요소 등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 조치하는 '서울 반려견 순찰대'를 통해 공동체 치안 환경을 조성했다.

지난 5월 강동구에서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이달부터 12월까지 송파·서초·금천·강서·마포·서대문·성동·동대문구 등 총 9개 자치구에서 서울 반려견 순찰대를 가동한다. 견주가 '반려견 순찰대'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서류·현장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인원이 일반·안전 교육을 받은 후 반려견과 순찰대로 활동하게 된다. 심사 항목은 ▲서류심사(지원 동기) 10점 ▲리드워킹 30점 ▲앞아·기다려 등 10점 ▲횡단보도 건너기 20점 ▲외부 자극 20점 ▲심사위원 평가 10점으로 이뤄졌다.

반려견 순찰대는 금년 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715건의 활동일지를 작성했다. 순찰대는 산책하며 발견한 중앙분리대 파손·가로등 고장 같은 생활

불편사항과 도로누움·주차자 등을 신고 조치했다. 해당 기간 '112 신고 건수'는 8건, '120 신고 건수'는 120건으로 집계됐다. 광진구와 노원구 등 현재 서울 반려견 순찰대가 운영되지 않는 자치구에서도 참여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자치경찰위는 "시민 참여형 치안 정책 시행을 위해 시민이 직접 방법 순찰을 하는 '서울 반려견 순찰대'를 추진, 우리 동네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자치경찰위는 서울 자치경찰제 정책 기획·시행 과정에서 시민을 적극 참여시켜 지면을 확대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치안 시책을 개발해 실질적인 치안 개선을 유도하고자 '서울 자치경찰 시민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자문단은 31개 경찰서에서 추천을 받은 277명을 포함 총 311명으로 구성됐다.

자치경찰위는 "치안정책 개발시 자문단 제안을 반영해 시민 맞춤형 행정을 펼치고자 한다"며 "이륜차 소음 규제 방안 등 정책개발 TF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자문단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 결과를 공유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선별진료소 운영... 시내버스 막차 연장운행

서울시, 2022년 추석 종합대책 시행 22만 기초생활수급가구에 위문금품

서울시는 이달 7일부터 13일까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와 가을 태풍 등 풍수해 대비를 골자로 하는 '2022년 추석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시는 공백없는 코로나19 검사·치료 체계를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를 자치구별로 1개소 이상 운영한다. 응급환자를 위한 응급 의료기관(50곳)도 24시간 가동한다.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추석 연휴 지

하철과 시내버스 막차시간 연장운행(10~11일)을 재개한다. 실내·외 시립장 사시시설도 정상 운영하고 망우리, 용미리 1·2 시립묘지를 경유하는 4개 노선 시내버스를 일일 49회 증회(10~11일) 운행한다.

취약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약 22만 기초생활수급가구에 위문금품을 지원한다. 명절기간인 9월 9일부터 12일까지 노숙인 시설 38개소에서 1일3식 무료급식을 시행한다. 결식 우려아동 2만7000여명에 대한 무료급식은 연휴에도 중단없이 계속된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수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시설물 사전 점검을 벌였다. 현재 태풍 북상 대비 추가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자치구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시간·일정 ▲윈스톱 진료기관 ▲명절 휴일 운영약국 ▲대중교통 막차시간 ▲전통시장 주차 등 시민들이 많이 묻는 문의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2022 추석 특별페이지'와 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고양시,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앞장

생애 주기별 환경교육 마련

경기 고양특례시가 시민들이 친환경·저탄소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해 '제1차 고양시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교육 기반 강화 ▲공교육과 함께하는 환경교육 ▲사회환경교육 확대 ▲환경교육 협력 확대 등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생애 주기별 환경교육'을 마련했다.

이 교육 과정은 '씨앗기후환경학교

(유아기)-새싹기후환경학교(아동기)-트리기후환경학교(청소년기)-청년그린희과정(청년기)-기후환경학교(성인기)'로 구성돼 있다.

시는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비롯해 학교를 찾아가 생태계의 특징을 알아보고 자연과 사람의 공존 방안을 찾는 등의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기후위기 대응에 청년 세대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청년 기후환경 활동가(Green Hope, 그린희)' 과정도 운영 중이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서울 1인가구 "재능렌탈 서비스 가장 필요"

1인가구 정책 아이디어 발표회

서울시는 이달 3일 열린 '1인가구 정책 아이디어 발표회'에서 '재능 렌탈 서비스'가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1인가구로 구성된 '쌍글빙글 서울 서포터즈'는 이번 발표회에서 ▲경제자립 ▲사회관계망 ▲안전 ▲생활안심 ▲주거안심 5개 분야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1인가구 누구나 멘토(재능 렌탈 서

비스)' 정책 아이디어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는 1인가구가 재능 기부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멘토링 마일리지'를 지불하는 것이다. 재능 기부자는 적절한 마일리지를 다양한 혜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한 플랫폼을 통해 서로 돕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제안"이라며 "느슨한 연대 속에서 공동체 의식과 상호부조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아이디어로 평가받았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내년 서울시 청년자율예산 온라인 대시민 투표 실시

서울시는 청년들이 스스로 기획·제안하고 시민들의 투표로 확정되는 '2023년 서울시 청년자율예산' 12개 사업에 대한 온라인 대시민 투표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투표에 부쳐지는 12개 사업은 1000여명의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참여자들이 230여 차례 숙의를 거쳐 기획한 것이다. 투표 기간은 내달 2일까지다. 서울시 엠보팅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9월 5일 (월)

음력 : 8월 10일

수도권 날씨

23~25°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6:05 | 해질 / 18:56

연천 22/24

동두천 21/24

백령도 19/23

파주 21/23

가평 20/23

서울 23/25

양평 22/25

인천 22/25

수원 22/25

용인 22/25

평택 22/26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파월 ‘8분 연설’로 세계주식 시가총액 약 7000조원 감소”
▲아르테미스 발사, 연료누출로 또 실패...10월로 연기될 듯 /사진 뉴시스

▲“인도, 2029년 3대 경제대국”...中대신 세계 ‘엔진’되나
▲대만, 中위협에 맞불...장갑차·전투헬기 동원 실사격 훈련



▲中대사관 “美 대만 무기 판매 즉각 철회하라...단호히 대응” /사진 뉴시스
▲‘해외 도피’ 스리랑카 전 대통령 7주 만에 귀국